



# 제주 공공 공연장 관객 잡기 벌써부터 후끈

3개 공연장 라인업 잇단 공개  
도문예회관 뮤지컬 페스티벌  
아트센터 10주년 무대 화려  
서귀포예당도 내달부터 본격  
제주 공연스타 발굴은 미흡



소프라노 신영옥, 뮤지컬 배우 민우혁.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공연장들이 2020년 공연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전문 공연장을 갖춘 이들 시설은 저마다 공연 기획자를 두고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건 프로그램으로 일찌감치 관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공연계 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편에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에 대한 발굴은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제주 무대를 달굴 이들 공간의 공연을 미리 만나보자.

1988년 개관해 도심 공연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예회관은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뮤지컬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최근 몇년 동안 오페라페스티벌을 진행해왔다면 문예회관은 뮤지컬로 차별화에 나선 모양새다.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도문화진흥원 측은 "관객 대상 공연 만족도 조사에서 뮤지컬 공연 요청이 많았다"며 "향후 제주 소재 창작품 개발에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공연은 '팬터미', '6시 퇴근', '워치' 등 3개 작품이다.

접근성이 좋아 중장년층을 포함 세대를 아우르는 문예회관의 장점을 보여주는 '어민락 콘서트'도 계속된다. 개관 기념일을 앞둔 8월 22일 문예회관 야외 광장에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공연을 펼친다.

소극장을 깨우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콘서트'도 준비됐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중부터 유치원 단체 관람을 겨냥해 '모차르트와 마법의 지휘봉' 콘서트를 연다. 5월엔 가정의 달 기념 가족 공연을 기획했다. 역대 도립무용단 안무자 초빙 대표 작품 공연 등 창단 30주년을 맞는 도립무용단과 연계한 기획 무대도 이어진다.

제주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 특별 공연에 힘을 썼다. 어느 해보다 라인업이 화려하다.

3월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전국 주요 6개 도시 투어공연으로 오스트리아비행방송교향악단이 내도해



오스트리아비행방송교향악단.

베토벤 '영웅 교향곡'을 선사한다. 5월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데뷔 30주년 전국투어 공연을 유치했다. 국내 정상 유니버설 발레단의 창작발레 '심정' 공연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제주 출신 무용수 김설진이 참여하는 전국무용인한 마음축제 등이 잇따른다.

특히 10주년 특별공연으로 제주4·3 소재 창작오페라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아트센터 측은 "2018년부터 지속해온 오페라 제작 시리즈"라며 "제주인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내는 아트센터 최초의 창작오페라 작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조성진 독주회 등으로 화제몰이를 했던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다음달 14일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클림트-운명

의 키스'로 기획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뮤지컬 배우 민우혁·신영숙 등이 출연하는 이 작품에선 베토벤의 명곡을 클림트의 명화로 되살려낸다.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코미디 빅 콘서트(3월),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독주회(4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하는 개관 6주년 기념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6월)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브랜드 공연으로 평가받는 제5회 서귀포오페라 페스티벌(8월)은 '투란도트' 등으로 꾸며진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방송 도르트문트 어린이합창단 초청 공연(8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 4중주단으로 꼽히는 브로딘 콰르텟 70주년 기념 내한 공연(12월) 등도 2020년 라인업에 들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1월 20-27일) 무대 & 미술

## 그림으로 떠나는 낯선 도시의 골목

현인갤러리 새해 기획전  
음영일 초대전 '유럽기행'

제주 현인갤러리가 새해 첫 초대전을 통해 관람객들을 유럽으로 이끌고 있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20회 개인전을 열었던 음영일 작가의 '유럽기행전'이다.

이번 전시엔 음 작가가 지난해 초 발디넛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에서 만난 풍경들을 펼쳐놓고 있다. 그는 낯선 도시의 골목과 포구 등을 은화하고 평화로운 화면 안에 담아냈다.

- <공연>
- ▶ 제1회 제주 주니어 클리닉 앙상블 연주회=1월 22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 <전시>
- ▶ 2020 올해의 독립운동가=1월 20-2월 24일 항일기념관 중앙로 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선정한 2020년 1월~12월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공훈 내용을 선보인다. 783-2008.
- ▶ 오재환 초대전=1월 21일까지 갤러리비오톱. 711-1262.
- ▶ 선홍 2리 마을 창작 그림책 전=1월 21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02-733-4448.
- ▶ 뽕뽕 사진전=1월 2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KEB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지하 돌담갤러리. 757-2171.
- ▶ 2019 보도사진영상전=제주카메라기자회 주최 1월 2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 로알달트 피겨린 특별전=1월 23일까지 오전 11시~오후 9시 수암 파랑카페.
- ▶ 음영일 초대전=1월 30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전선희기자

## 추자도에 간다면 잠시 멈추고 춤을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  
조형물 설치·유휴공간 조성

제주 '섬 속의 섬' 추자도가 예술이 있는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추자면 후풍갤러리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온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아름다운 맵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사)문화조형연구소(대표작가 하석홍)가 선정되면서 실시됐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잠시, 멈추자, 춤을 추자'라는 슬로건 아래 '추자에서 아프리카까지 생명을 잇다-이법진·김삼도 전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작업이 이어졌다. 추자 신양리 여객 터미널 앞에는 하석홍 작가의 '춤 추자'가 세워졌다. 추자도, 최영 장군, 참굴비 등 추자도 대표 상징물을 자음 'ㅈ'에 담아 춤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추자도 출신 고(故) 윤덕현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로 신양리 여객 터미널 앞에 세워진 하석홍 작가의 '춤 추자'.

서애가가 생전에 운영했던 후풍갤러리는 갤러리 카페 등으로 새단장했다. 묵리 낚은 어촌계 창고는 쉼터인 '날말고개'로 새로 태어났고 후포포구에는 후포 갤러리가 생겼다.

문화조형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추자중학교 미술 특강과 실기 수업을 벌이고 마을청년 등이 참여하는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 홍보단을 꾸렸다. 올해도 자연친화적인 작품 설치와 빈집 레지던스, 작업장과 낚은 건물을 활용한 복합문화관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 제주어대사전 편찬위 회의

제주학연구원센터는 이달 21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를 연다.

이날 회의는 편찬·자문위원 위촉 후 두 번째다.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 강경희 한남대 명예교수, 양전형 전 제주어보존회 회장 등이 자문 역할을 하고 정승철 서울대 교수 등이 감수를 맡는다. 집필자는 강정식 제주대 강사, 고광민 민속학자, 김성용 제주어교육연구회장, 문덕찬 전직 국어과 교사, 신우봉 제주대 교수, 오창명 제주국제대교수 등이 위촉됐다.

### 나눔 어린이 만덕학교 운영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방학기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나눔교육 프로그램인 '나눔하는 어린이 만덕학교'를 운영한다.

나눔하는 어린이 만덕학교는 2월 4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된다. '김만덕과 나눔'을 주제로 한 주1회 과정의 독서·미술교육인 나눔동화극장(초등 1-3학년), 한자로 배우는 나눔(초등 1-3학년), 역사·미술 창의융합 프로그램인 제주의 나눔역사(초등 2-4학년), 캘리그래피 강좌인 나눔을 쓰다(초등 2-4학년)로 짜여졌다. 수강료 무료. 이달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 스토리 창작교육 무료 진행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푸른여름스토리연구소 김태원 대표를 초청해 '매혹적인 스토리 탄생의 비밀: 훅 앤 플롯(Hook & Plot)'을 주제로 스토리 창작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한다.

이달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도내 스토리 분야 종사자와 예비창업·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 벤치마크에 기초한 스토리 창작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순서엔 자신의 스토리 아이템을 코칭 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 새해 부적 만들기 워크숍

달리도서관은 미술치료사 정은혜 작가와 함께하는 '2020년 새해 부적 만들기' 워크숍을 연다.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새해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중심 가치를 찾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그 안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020년을 위한 삶의 가치 문장 쓰기, 가치와 맞는 삶의 방식 상상하기, 새해 부적 만들기를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비는 재료비 등 포함 5만원. 문의 064)702-0236.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